

WBC 나선 한국 야구, 호주·일본에 잇달아 패배

‘우물 안 개구리’ 현실 재확인

14년 만에 4강 진출을 목표로 세우고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나선 한국 야구가 차가운 현실만 재확인했다.

이강철 감독이 이끄는 한국 야구 대표팀은 2023 WBC 1라운드 B조 1, 2차전에서 호주, 일본에 잇달아 졌다.

호주와의 첫 경기를 반드시 이겨 8강 진출 안정권에 든 뒤 부담감을 덜고 ‘속적’ 일본을 상대하겠다는 계획은 진즉에 틀어졌다. 호주에 7-8로 패배한 한국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일본에 4-13으로 대패하는 수모를 겪었다.

8강 진출의 실낱같은 희망은 남아 있지만 자력으로는 불가능하다.

한국은 13일 중국전 등을 모두 이긴 후 다른 나라의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2013년과 2017년에 이어 3연속 1라운드 탈락의 위기에 몰린 한국 야구가 ‘우물 안 개구리’로 전락한 현실을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이번이 최선의 전력을 구성했다. 소속팀 반대에 부딪힌 최지민(피츠버그 파이어츠)과 학교 폭력 피의자를 폐지 못한 안우진(키움 히어로즈)을 제외하고는 뽑아야 할 선수를 모두 최종 엔트리에 포함했다. 대회 준비 도중 부상으로 이탈한 선수도 없었다. 하지만 객관적 전력상 한 수 아래로 여겨진 호주에 달미를 잡히면서 체면을 완전히 구겼다. 일본과의 대결에서는 볼드게임 패



지난 10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WBC) 2023 B조 일본과 대한민국의 경기. 4:13으로 일본에 패배한 대표팀 선수들이 덕아웃으로 향하고 있다.

한 수 아래 여긴 호주에 패... 일본과 기량차 절감
마운드 줄줄이 붕괴... 타자들도 힘 못써

배를 간신히 면하며 더 벌어진 실력 차만 확인했다.

한국은 2015년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결승에서 일본에 역전승을 거두며 우승했지만, 2019년 프리미어12에서는 예선, 결승에서 모두 일본에 졌다. 2021년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서도 일본과 접전을 벌인 끝에 패배했다. 그러나 이번

에는 볼드게임 패배 직전까지 물리는 수모를 당했다.

무엇보다 호주, 일본전에서 한국 마운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국 투수진은 호주전에서 홈런을 3방이나 허용했고, 일본과의 경기에서도 장단 13안타를 얻어맞았다. 시속 160km의 강속구를 던지는 일본 투수들과 달리 한국에는 시속

150km를 넘기는 투수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구속도 구속이지만, 제어력도 문제였다.

한국 투수들은 초구 스트라이크를 잡지 못했다. 스트라이크 존을 크게 벗어나는 공이 많았다. 일본전에서 볼넷 8개를 내줬고, 몸에 맞는 공도 나왔다.

한국은 호주전을 앞두고 공식 발표 시간 전까지 선발 투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일본전 선발 투수도 호주전을 치르면서 결정했다. 선발 투수를 미리 공개한 호주, 1라운드 선발 로테이션을 미리 정한 일본과

사투 달랐다.

그만큼 자신있게 내세울 투수가 부족했다. 이 감독은 “일본처럼 좋은 선발 투수가 없어서 정해두지 않았다. 감추는 것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일본전에서 투수진이 줄줄이 무너지는데도 마광히 캐널 카드가 없었다. 6회말 무사3루에서 국제대회 경력이 전무한 김윤식(LG 트윈스)을 투입한 것도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였다.

타자들도 아쉽게 마친 경기였다.

처음 보는 투수들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빠른 공에는 여지없이 방망이를 헛들었다. 호주전에서 경기 시작 후 13명의 타자가 연속 범타로 물러나기도 했다.

한국은 2006년 WBC 4강, 2009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 2009년 WBC 준우승을 차지하며 부흥기를 맞았다. 팬들이 크게 늘면서 9, 10구단을 창단해 외연을 넓혔다. 100억원이 넘는 계약이 속속 등장할 정도로 선수들의 몸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

하지만 국제 경쟁력은 오히려 퇴보했다. 다른 나라의 발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한국은 ‘우물 안 개구리’로 전락했다.

국제대회에서 참사를 겪을 때마다 ‘국제 경쟁력 강화’를 외치곤 한다.

하지만 그때 뿐이다. 참사의 기억이 희미해지면 다시 제자리다. 이것이 반복되면 한국은 이후에도 국제 대회에서 틀러리 신세를 면하기 힘들다. /뉴시스



한일전 벌어진 도쿄돔에
어김없이 욱일기 등장

KBO, 공장 항의... 'WBCI'

리라운드 조직위, 반입 제한 약속

한국과 일본의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경기가 열린 지난 10일 도쿄돔에 어김없이 욱일기가 등장했다.

그간 국제대회에서 일본 관중들이 욱일기 응원이 펼쳐져 한국 측이 항의한 것도 여러 차례인데,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욱일기가 경기장 한켠에 자리했다.

안경을 쓴 남성이 도쿄돔 외야 2층 좌석에서 욱일기를 들고 있다가 사라졌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하는 국제대회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일본의 국군 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도 금지 대상이다.

하지만 메이저리그(MLB) 시무국의 주도로 열리는 WBC에는 관련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돼 있지 않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전에 욱일기가 또 등장할 것을 우려해 WBC 조직위원회(WBCI)와 일본 리운드 조직위원회에 2월과 3월, 두 차례 욱일기 응원 제지를 요청했다.

KBO 관계자는 “WBCI 측에서 ‘욱일기 논란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응원 도구 및 응원 깃발 규정을 적용해 반입을 제한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며 “일본 리운드 조직위원회 역시 반입을 최대한 자제시키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욱일기 반입이 이뤄졌고 경기장에 등장했다.

KBO는 욱일기가 나타난 것을 확인한 즉시 WBCI와 일본 리운드 조직위원회에 항의했다. KBO 관계자에 따르면 조직위 측은 곧바로 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

흥국생명, V리그 여자부 정규리그 우승에 성큼

KGO에 세트 스코어 3-0 승

흥국생명이 정규리그 우승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흥국생명은 지난 11일 인천삼척체육관에서 벌어진 도드람 2022~2023 V-리그 여자부 KGC인삼공사와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3-0(25-16 29-27 25-22) 승리를 거뒀다.

승점 3을 챙긴 1위 흥국생명(25승9패 승점 76)은 2위 현대건설(24승10패 승점 70)을 승점 6차로 따돌렸다.

흥국생명은 남은 2경기에서 승점 1만 추가하면 2018~2019시즌 이후 4시즌 만에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할 수 있다.

흥국생명 엘레나는 24점(공격성공률 55.28%)을 몰리며 공격을 이끌었다. 김연경과 김미연은 각각 13점, 12점을 지유했다.

불배구 막차를 노리는 KGC인삼공사는 승점을 얻어내지 못하고 4위(18승 17패 승점 53)에 머물렀다. 3위 한국도로공사(18승16패 승점 54)와는 승점 1차다. /뉴시스

프로농구 KCC “6강 PO 우리가 간다”

원주 DB에 80-64 20점차 대승

프로농구 전주 KCC와 고양 캐롯이 6강 플레이오프 진출에 한걸음 더 다가갔다.

KCC는 지난 11일 전주삼척체육관에서 열린 2022~2023 SKT 에이닷 프로농구 원주 DB와 경기에서 국내 선수들의 활발한 득점 지원에 힘입어 84-64, 20점차 대승을 거뒀다.

지난 경기에서 창원 LG에 30점차 대

패를 당했던 KCC는 대승으로 한 경기 만에 분위기를 반전했다.

2연패를 끊은 6위 KCC(21승26패)는 7위 수원 KT(20승27패)와 승차를 한 경기로 유지했다.

발목 부상으로 이탈했던 주득점원 허웅이 조만간 복귀할 것으로 알려져 KCC의 향후 상승세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이날 KCC는 라건아(21점 14리바운드)를 중심으로 국내 선수들의 득점이

고르게 분포했다.

정창영이 13점 8어시스트, 전준범과 이근화가 12점씩 지원했다. 디온 탐슨도 13점을 올렸다.

DB(17승29패)는 2연패에 빠지며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KCC와 승차가 3경기 반으로 벌어졌다.

김종규가 8점 강상제가 무득점으로 부진했다. /뉴시스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